

전주시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13일부터 전주사랑상품권 앱 활용 온라인 신청 · 26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주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무너진 전주시민들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13일부터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스마트폰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앱을 통해 전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이날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평일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9일 24시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등록한 △전주시 주민등록자 △결혼이민자(F비자) △영주자격자(F5비자) 등이다. 이 조건만 갖춰 나이와 직업, 소득 등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 방식은 스마트폰 전주사랑상품권 앱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세대주 일괄신청 또는 세대원 개별신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일 후 전주사랑상품권 카드에 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또, 온라인 신청기간 중 전주사랑

상품권 신규가입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세대주 일괄신청 또는 세대원 개별신청을 선택해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명 선불카드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오프라인 신청 초기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기간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온라인 5부제 미적용)하며, 다음 달 3일부터는 출생년도와 요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

까지 전주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전주사랑상품권 앱에서 기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자의 경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부신청서와 선불카드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676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서 국제어린이마라톤 열린다

5월 5~7일 공식 앱 활용 런택트 방식 대회 운영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국제마라톤대회가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와 세이브더칠드런, 연합뉴스는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전주 일원에서 '2022 국제어린이마라톤'을 개최한다.

비대면 런택트(Run+Untact) 방식의 국제어린이마라톤은 '작은 한 걸음이 신생아들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슬로건으로 전 세계 아동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라톤 참가자들은 행사 기간 중 각자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서 마라톤 공식 앱에 접속한 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대회는 참가자들이 1km를 달릴 때마다 신생아 생존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미션이 알림으로 전달되고, 스마트폰 흔들기와 터치 등의 기능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며 총 4km를 달리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주시는 행사 기간 동안 온라인 참여 외에도 덕진공원과 세방공원, 국립무형유산원 등 총 3곳에 이동들이 가족과 함께 야외에서 마라톤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코스를 운영한다. 또, 원주 인증사인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현장 이벤트도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마라톤대회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제어

린이마라톤 공식 누리집(marathon.sc.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 1만5000원으로, 모인 참가비는 전액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국내외 신생아의 사망률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된다. 대회의 모든 참여자에게는 기념 티셔츠와 완주 기념 메달 등이 담긴 마라톤키트가 사전에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황관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코로나19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축소되어 안타까운 상황에서, 어린이주기에 개최하는 이번 국제어린이마라톤은 국립무형유산원에 추천코스와 포토존을 추가 설치하여 다양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탄소산업 분야 전주형 상생일자리 추진 상생협의회 출범

탄소산업상생협의회 개최... 전주형 일자리 경과·추진계획 보고·중점 추진계획 발표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탄소산업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주형 상생일자리' 추진 동력이 마련됐다.

전주시는 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양원창 일자리위원회 상생일자리 지원센터장,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효성첨단소재(주) 대표,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상생일자리 선정을 목표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탄소산업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탄소산업상생협의회는 전주형 상생일자리 추진을 위해 노·사·민·정이 구축한 전주형일자리 컨트론타워다.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을 비롯한 노조대표 4명과 효성첨단소재(주) 대표를 비롯한 사측 대표 19명, 강동화 의장을 비롯한 시민 대표 4명,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행정 대표 4인 등 22명이 참여한다.

상생일자리 지정을 위한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처음 열린 회의는 △전주형 일자리 경과 및 추진 계획 보고 △2022년 중점 추진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올해 전주형 일자리 중점 추진사항과 관련, △전주형일자리



전주시는 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양원창 일자리위원회 상생일자리 지원센터장,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효성첨단소재(주) 대표,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상생일자리 선정을 목표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탄소산업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협약사항 이행 △국비사업 발굴 및 기업 지원사업 확대 △탄소산업 분야 일자리 선정을 위한 탄소산업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양원창 일자리위원회 상생일자리 지원센터장은 전주형 상생일자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으며, 이정석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도 전주형 상생일자리 추진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시는 전주형 일자리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탄소산업 상생협의회 산하 분과위원회인 △탄소산업협동조합분과위원회 △일자리개선분과위원회 △공공근로복지기금분과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탄소산업협동조합분과위원회는 탄소공공구매와 협동화 공장, 공공교육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일자리개선분과위원회는 노동시간과 복지, 환경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 및 실행을 고민하게 된다. 공공근로복지기금분과

위원회는 참여기업 근로자 대상 복지 기금 운영 및 지원을 주관한다.

효성첨단소재와 데크카본, KGF를 비롯한 전주형 상생일자리 협약기업과 협력기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투자 1375억 원, 고용 227개, 공공근로 복지기금 조성 등의 협약사항을 이행하게 된다.

시는 향후 탄소산업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국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체 지원사업을 확대해 올 하반기 산업부에 지역 상생일자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상생일자리 지정되면 참여기업과 근로자에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를 가산 및 한도 상향 △법인세 감면 △세액공제 우대 △직장 어린이집 △트론버스 △북한문화센터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김중성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은 "전주형 일자리는 미래 먹거리인 탄소산업 생태계를 육성해 지역산업 구조를 첨단화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탄소산업 관련 노·사·민·정, 전북도, 일자리위원회 상생일자리 지원센터 등과 꾸준히 협력해 정부의 지역 상생일자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그 파급효과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덕진구, 대학교·사립 유치원 식중독 예방 점검 실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현창)는 개학 초기 위생적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중독 예방관리가 중요한 대학교와 사립유치원 급식소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급식시설 및 기구 세척·소독 관리 △건강진단 실시 △유형기반 경과제품 사용 △보관 △무표시 원료 사용 △식재료 보관 온도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특히 학교 급식의 경우 동일 식재료 사용으로 대규모 식품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불철 식중독 발생이 높은 노로바이러스 및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악취막기 △끓여먹기 △구분사용하기 △세척 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홍보한다.

아울러 구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 준수사항에 대한 사항도 함께 지도할 계획이다.

최현창 덕진구청장은 "방학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조리시설을 세척·소독 하는 등 예방 중심의 위생적 관리로 급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전국 최고 감염관리센터 5월 본격 가동

국가적 감염병 재난 효율적 대비 위해 국립대 최초 준공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코로나19를 비롯한 국가적 감염병 재난에 안전하게 대비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최초로 전국 최고 수준의 감염관리센터를 준공했다.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센터는 국비 131억 원과 도비 10억 원, 자부담 131억 원 등 총 272억 원을 투입해 전북대병원 응급센터 옆 부지 4,963㎡에 지어진 지상 1층에서 4층 규모의 명실공히 전국 최고수준의 감염병 전담시설이다.

감염관리센터는 국가적 감염병 재

난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모 병원의 정상적인 진료체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감염병 환자를 독립된 공간에서 검사에서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비했다. 지상1층에서 4층까지 25실 51병상을 확충하고 있으며 CT 등 23종 177대의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

1층에는 선별진료소와 음압촬영실, 외래검사실, 음압수술실, 음압 X-ray, 음압CT실 등을 갖추고 있다. 2층에는 음압일반병실, 3층에는 중

증환자 긴급치료 중환자실과 국가 지정 격리병상이 들어선다. 4층에는 감염관리실 및 감염병 교육을 위한 교육장 등이 있다.

초대 센터장은 코로나19에 전라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실장 이창실 교수가 맡는다.

센터의 가동은 시범운영을 거쳐 5월 중순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확실한 외부 출입동선 구분을 통해 일반환자와 의료진 및 모병원을 보호하게 되고, 신종감염병 출현에 따른 환자 급증 시 감염병 위기대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특히 병원 내에 중증환자 치료경험이 풍부한 인적인프라를 유용하게 활용해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감염병 출현에 대비 완벽한 대응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희철 병원장은 "감염관리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독립된 건물에서 검사에서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면서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일반 중환자들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학교병원이 코로나19를 비롯한 국가적 감염병 재난에 안전하게 대비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최초로 전국 최고 수준의 감염관리센터를 준공했다.

전주시 덕진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기초생활수급·장애인세대 등 화재취약계층 600가구 대상

기초생활수급세대와 장애인가구 등 화재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이 보급된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현창)는 올해 총 2500만 원을 투입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600가구에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복지 취약계층의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가정용 소화기(3.3kg)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을 일괄 구입해 덕진소방서와 각 지역 119안전센터에 배치할 예정으로, 가구별 현장 설치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현창 덕진구청장은 "주민들께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비교적 쉽게 구비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가정 내에 꼭 설치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덕진구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동주택뿐 아니라 일반주택도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대상은 원룸·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거실·주방 등)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가든 서포터즈' 발대식 갖고 본격 활동 돌입

전만그투정원도시추진위원회(상임대표 정명운)와 전주시는 5일 식목일을 맞아 '2022 전주시 가든 서포터즈'를 선발하고, 발대식을 가진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선발된 10명의 서포터즈는 정원박람회 및 정원산책 등 정원문화 행사, 초록정원사 양성교육, 정원해설사 양성교육 등 교육행사, 전주시 탄소중립을 위한 녹지정책 활동 등에 참여해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전만그투정원도시추진위원회 단체 및 사업 소개, 가든 서포터즈 OT 교육 및 활동

계획,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서포터즈는 매월 기획 회의를 통해 전주의 아름다운 정원을 알리고, 전주시의 녹지정책 분야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4월부터 11월까지 SNS를 통해 활발한 홍보활동을 가질 예정이다.

전만그투정원도시추진위원회 정명운 상임대표는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주의 녹지 또는 정원관련 사업들이 활동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며 "2022 전주시 가든 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선발된 서포터즈들의 활약으로 전국에 많이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